

## 작지만 강한, 내실기업 선두주자

### 인프라 구축 통해 한국종합상사화(韓國綜合商社化) 실현



최삼용  
한국지업(주) 대표이사

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이윤창출이라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업계는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이윤창출에 급급한 성장을 추구하고, 정작 필요한 장인정신과 내실면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즉,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익활동이 팽배하면서 정직한 이윤을 창출하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경제상황 아래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일이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되는 오늘날,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신념으로 내실을 추구하고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지업(주)(대표이사 최삼용)을 찾았다.

1993년 6월 서울 오장동에서 법인설립 된 한국지업



▲ 한국지업(주)이 공급하고 있는 제품



▲ 방산시장내에 위치한 한국지업(주) 창고

(주)은 다양한 품종의 지류상품을 확보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신속, 정확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1999년 국내 최대의 인쇄 및 포장자재 전문시장인 방산시장으로 사업장을 이전, 대리점을 오픈,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지업(주)을 창립하기 전, 한국제지(주)에서 근무한 최삼용 사장. 10여년간 제지와 관련된 주·부원료 성분 검사를 하는 연구를 비롯해, 그라비아 인쇄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업무를 해 온 그는 현재 한국제지(주)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지업계 발전

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 아래 한국지업(주)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업(주)은 창립 이래, 백상지, 중질지, 정보산업용지, 특수지, 아트지, 가공특수지를 비롯해 각 기획 및 제조 회사가 찾는 특화된 품질의 지류상품을 개발해 고객만족을 주도한 특수지 개발 전문 회사이다.

또한 제지회사와 수요자간 품질 및 상품동향과 정보를 제공을 통해 상품화 계획에 협조하는 등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제지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삼용 사장은 “종이를 통해 얼마의 이익이 남는다는 1차적인 생각보다는 종이 자체가 고객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고객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창출에 기여하며 탄탄한 신뢰를 구축한 결과, 한국지업의 거래처는 포장 및 인쇄업계, 출판사를 비롯해 250~3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최삼용 사장과 더불어 1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지업(주).

최삼용 사장은 “사원들의 자기계발에 지원하는 등 인력 투자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경영 방침아래, 직원들을 일년에 두차례 해외 전 시회에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지류판매만으로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터.

최삼용 사장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넓은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Hankuk



▲ 고객만족을 신념으로 한국지업(주) 가족들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재 한국지업(주)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발전의 기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그 첫번째로 한국지업(주)은 지난 달 초(初), 업체 발전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사무소를 이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지업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파주인쇄단지 4백여평의 땅에 대규모 창고를 갖춘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포장소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최 사장은, 원론적인 것부터 실천해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종합상사화(韓國綜合商社化)”라는 꿈을 꾸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지업(주)은 “제지업계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포부에서 한층 도약, “포장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신념으로 (사)한국포장협회의 일원이 되었다.

최삼용 사장은 “협회 가입으로 한국제지(주)에서의 영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그라비아 업계와의 친목을 다지

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포장업계가 요구는 적절한 사양의 종이를 개발해 작은 몫이라고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협회 회원사들이 지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때 샘플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업계에 힘이 되고 싶다”며 “도움을 주신 그라비아 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지업(주)은 전년 대비 25%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내실을 추구하며 발전할 계획이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스피드화되는 생활양식이 팽배하고 있는 현재, 한국지업(주)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기능적·독창적인 지류 개발로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해 갈 것이다.

내실있는 기업, 자치만 강한 기업, 한국종합상사화를 꿈꾸는 한국지업(주)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